

무등산 산사태 지역, 식생 줄고 맨땅 늘어 낙석 위험 커졌다

국립공원 산사태 발생지 현황조사
인공복원에도 토사 유출 나지면적 ↑
정밀진단·보강·상시 모니터링 필요

무등산에서 과거 산사태가 났던 지역을 모니터링 한 결과, 식생이 늘기는커녕 나지(맨땅)만 늘어나고 사면이 지속 침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무등산 서석대 인근에서 1t가량의 암석이 떨어져 탐방로 일부가 통제되는 등 낙석 사례까지 발생해 무등산의 환경,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5 국립공원 산사태 발생지 현황조사(모니터링)' 종합분석에 따르면, 2021~2025년 사이 무등산 국립공원 내 산사태 발생지 3곳을 분석한 결과 식생 면적은 줄고 나지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전국 국립공원 내 산사태 발생지 44곳을 분석한 결과가 실렸는데, 무등산과 설악산, 경주를 제외한 다른 공원은 모두 식생 면적이 증가해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 내 '국립공원별 단기모니터링 시계열 분석 결과'를 보면 무등산 산사태 발생지 총 1만 8613㎡ 중 나지면적은 2024년 5620㎡(30.1%)에서 2025년 6365㎡(34.2%)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식생면적은 1만 2993㎡(69.8%)에서 1만 2248㎡(65.8%)로 줄었다.

특히 모니터링 대상지 3곳 중 가장 면적이 넓은(1만 7966㎡) 한 지역은 단꺠가산돌쌓기 등 사면 안정공법을 적용해 인공 복원을 하고 있음에도 나

지 면적이 2024년 5613㎡에서 2025년 6343㎡로 7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드론 라이다(LiDAR·원격 거리 측정 기술)를 이용해 확인한 결과, 이곳에서는 2024년 대비 2025년에 토공량(토사) 2058㎡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부 구간에서 토사유출이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무등산에서 최근 발생한 낙석 사례도 무등산의 토사 유출, 식생 감소와 관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께 무등산 서석대 인근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해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낙석은 1t가량의 화강암 기반 암석으로 다행히 인명·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낙석 원인과 관련,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는 수직절리가 발달한 구간에서 최근 눈으로 절리 주변 토사에 물기가 많아지고 접착력이 떨어지면서 낙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들고 있다. 또 절리 주변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절리에 끼여 있는 이끼 등 식생이 줄어들어 절리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립공원공단 측에서는 구간별 정밀 진단과 보강, 상시 모니터링 주기 재설정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무등산 대상지를 포함해 나지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곳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붕괴 유무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추가 붕괴시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대상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한다”

27일 오전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이재명 정부 신규원전 건설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확대 정책 즉각 중단과 한빛1·2호기 수명 연장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후에 너지환경부는 지난 26일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세탁부터 정리까지 '천원애(愛)'...서구, 장애인 일상 돌봄 서비스

민관 업무협약...일자리까지 확대

광주시 서구의 복지 브랜드 '천원의 동행'이 장애인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로 영역을 넓힌다.

서구는 지난 22일 '천원애(愛) 드림세탁·정리수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광주서구사무지역자활센터, 착한도시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협회 등이 참여해 인력 양성부터 서비스 운영, 행정 지원까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천원애(愛) 드림세탁'은 스스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세탁물 수거부터 세탁·건조·배송까지 전 과정을 1건당 1000원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450명을 지원하며, 전화 한 통이면 세탁업체가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구당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이 사업은 서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통해 마련된 6200만원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기부금이 돌봄 서비스로 되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구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민·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상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히 관리할 방침이다.

함께 추진되는 '천원애(愛)드림 정리·수납'은 청각·언어 장애인이 전문 인력으로 참여하는 일자리 연계형 복지 서비스다.

정리·수납에 강점을 가진 청각·언어 장애인이 직접 정리·수납 컨설팅이 필요한 장애인 세대를 방문해 공간 정리와 수납 컨설팅을 제공하며 이용자는 건당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구는 지난해 10~12월 시범사업을 거쳐 참여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3명(정리수납 12명, 전담 코디네이터 1명)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 기간 5명에서 30건의 사업량을 수행한 것을 고려해 지원 건수는 연 100건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8월부터 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협회 서구지회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자격증 과정 운영해온 만큼 자격증 취득과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담 코디네이터는 일정 관리, 대상자 사전 인터뷰, 현장 기록 작성, 사후 만족도 조사 등 서비스 전 과정을 총괄·조율한다.

서구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는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장애인 스스로 경제 활동을 통해 자립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형 일자리로 전환해 자립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단돈 천원으로 누리는 따뜻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동구,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갖고 운영 돌입

광주시 동구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도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나선다.

동구는 지난 26일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열고, 올해 사업 운영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공익형 41개, 역량 활용형 34개, 공동체 사업단 10개, 취업 알선형 1개 등 총 86개 사업단으로 구성되며 관내 복지관 등 8개 수행기관을 통해 총 4232명의 어르신이 참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말벗 활동을 제공하는 '노노 케어', 무등산 국립공원 시설 관리와 탐방객 계도를 맡는 '무등산 시니어 탐방 플러스', 학생들의 안전한 등

곳길을 돕는 '스쿨존 교통 지원' 등이 운영된다. 동구는 올해 현장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기존 32명에서 37명으로 늘려 배치하는 등 안전과 근무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발대식은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 참여자 모집

광주여성가족재단이 '2026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광주시와 함께 마을 이웃 간 자조모임 육아공동체인 '삼삼오오 이웃돌봄' 참여자를 다음달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이웃 간 육아품앗이를 지원해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근거리에서 거주하며 영유아 및 초등 아동을 둔 3~5가구로 이뤄

진 자조모임으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통해 40개 내외의 자조모임을 선정한다.

선정된 공동체는 4월부터 10월까지 돌봄 활동을 실천하며, 모임별로 최대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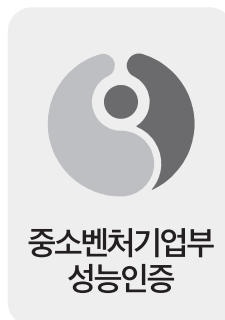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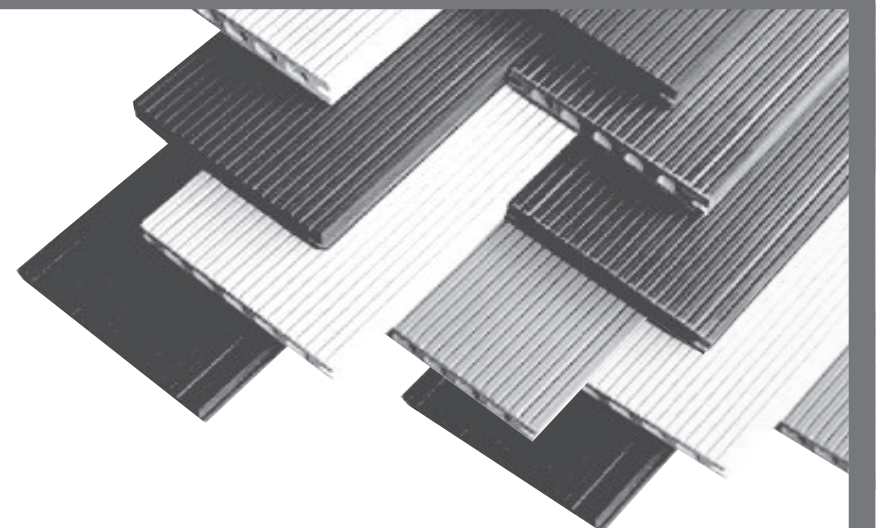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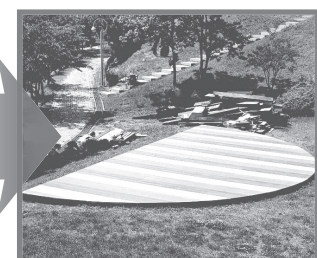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